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여전한 평행선

여 “이번 국회서 반드시 처리” vs 야 “비핵화 진전 있어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 비공개 회의서도 이견 못 좁혀

여야는 27일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며 팽팽하게 맞섰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갖고 8월 임시국회 처리법안을 비롯해 현안을 논의했다.

문 의장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 원내대표는 “주말 뉴스를 보니 의장께서 남북 정상회담 비준을 강행 처리할 수 있다고 언급하셨는데, 사실이라면 국회를 정쟁의 싸움터로 끌고 가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마저 대통령 정치에 손발이나 맞추는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대한민국은 엄청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문 의장은 지난 26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야당 설득이 어려울 경우 표결 처리를 밀어붙이겠다고 하자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문 의장은 이에 대해 “야당은 야당다워야 하고 견제가 첫째”라면서도 “발목잡기나 탄죽질기,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면 그게 야당이냐”고 맞섰다. 문 의장은 이어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남북정상회담 전에 비준 동의를 해야 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남북 문제에는 여야가 없다.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속의하고 토론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족사적 대 전환기에 국회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역사적 소명을 망기겠다는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는 타이밍이다. 날짜를 당장 정하지는 못 하더라도, 가능하면 남북정상회담 전에 비준 동의를 한다던 정상회담에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어 비공개로 1시간 정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만 달렸다. 야당 원내대표들은 비준 동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북핵 진전 상황을 지켜보면서 진행하자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지만, 이번 국회에서 국회 비준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면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은 비핵화를 성공시키기 위해 우리의 의지를 밝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국회 비준을 할 수 있다”며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 비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실질적으로 변화한다면, (그 때) 국회 차원에서 할 일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여야 입장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간극을 좁혀가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문 의장이 표결 처리를 강행할 경우 정국은 급변할 가능성이 크다. 또 표결 처리를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외교통일위를 거쳐야 하지만 외통위장은 한국당 소속의 강석호 의원이어서 1차 관문 통과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대통령 국정 지지율 56% ‘보합’ 새 대표 뽑은 민주당 41.9% ... 일주일새 2.3%p 올라

문재인 대통령의 주간 지지율이 50%대 중반대에서 약보합세를 보인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0-24일 전국 성인남녀 250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6.0%로 전주보다 0.3%p 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주간 기준 3주 연속 최저치다. 부정평가는 38.1%였다.

다만,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후반 들어 일간 집계에서는 점차 회복 조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정당대회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41.9%로 전주보다 2.3%p 올랐다. 3주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 일주일 만에 다시 40% 선에 올라선 것이다.

자유한국당 역시 0.6%p 상승한 20.5%로 3주 연속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정의당은 1.2%p 내린 12.1%를 기록, 3주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다. 바른미래당도 1.3%p 하락한 6.0%로 한 주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평화당은 0.2%p 오른 2.6%를 기록하며 5주 연속 2%대를 이어갔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與 정책 검증 주력 ... 野 정치 편향 공세

최영애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국회 운영위원회는 27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최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질문에 집중한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최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따졌다.

한국당 광상도 의원은 질의에서 “최 후보자는 사실상 특정 정당에 편향된 최근 언론에서도 지난 2012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민연토단 활동한 것을 두고 부정적 지적을 받았다. 이것이 특정정당에 편향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최 후보자는 “그 당시 시민사회 여성계에선 여성의 정치참여 할당제라

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편향된 것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우선 민주당에서 그런 제언이 먼저 들어왔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권철승 의원은 대일항쟁기 시절 인권침해와 용산참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을 언급하며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생각이 있느냐”며 최 후보자의 각오를 물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보위를 책임져야 하고, 특히 국가에 의해서 이뤄진 폭력에 대해선 국가가 무한히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며 “그동안 인권 침해가 있었던 사건에 대해선 인권위에서 소상히 밝히고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신임 당 대표(가운데)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신임 지도부와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민생경제 주력...20년 집권플랜 TF 구성”

민주당 대표 취임 첫 최고위 주제...야 지도부 방문 협치 시동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7일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문재인정부 2년 차인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생경제연석회의를 가능한 빨리 구성해 가동하겠다”며 “기업, 노동자, 정부,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회의체를 구성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성장을 함께 이끌어가도록 민생을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시작을 앞둔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이 녹록지 않다”며 “민생경제 안

정에 집중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시켜야 할 역사적 책무를 갖고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정·청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다”며 “이번 주에 가능한 고위 당·정·청 협의를 갖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일하는 국회와 국민을 위한 국회로 나아가기 위해 주제와 형식이 없는 여야 5당 대표회의를 제안드린다”면서 “민주 정부 20년 집권 플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탕평에 기초한 당직을 인선에 적재적소에 두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야당 지도부를 잇달아 방문해 협력을 요청하는 등 ‘협치’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 대표

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을 시작으로 야당을 릴레이 방문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여야 남북 추진과 더불어 외교적 차원에서 미중러일을 여야 5당 대표가 방문한다면 국회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해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선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면서 “가능한 한 서로 협의할 것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장병완 의원을 예방했고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과는 28일 오후 만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내달 1일 靑 오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일 9월 정기국회에 대비한 워크숍을 끝내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과 오찬을 함께한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워크숍 이른날(9월 1일) 청와대 오찬이 확정됐다”며 “의원단과 전체 국무위원, 청와대 수석들이 모이는 당·정·청 전원회의와 같은 회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31일 충남 예산의 한 리조트에서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1박 2일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 전략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원내지도부가 마련한 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입법 전략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김경진 “경전선 고속화사업 조속 추진을”

여야 의원 21명·자치단체장 20명 공동건의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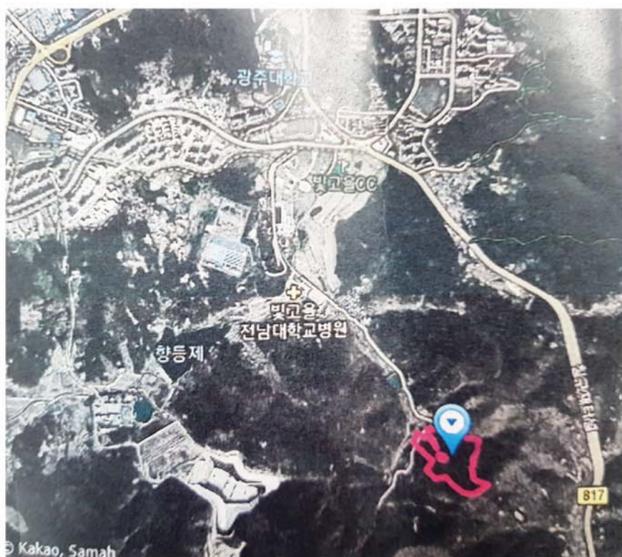
민주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 갑) 등 민주당 국회의원 6명은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경전선 고속화사업 조기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서 김 의원 등은 “지난 4월 국회토론회와 동시에 여야 국회의원 21인과 경유지 자치단체장 20인이 모여 경전선 조기 착공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작성했다”며 “영·호남 지역민들의 염원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국무총리 면담을 통해 전달했고, 이후 세종시 KDI를 방문해 경전선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왔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국회의 목소리를 또 한 번 전달한 만큼 KDI의 조속한 예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의원 21인이 참여한 오늘 기자회견이 경전선의 조기 추진을 위한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견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장병완·천정배·정인화·이용주·최경환 의원이 참석했으며 회견문에는 여야 국회의원 21명이 서명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20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되고 있음(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